

강희맹과 민족고전 《사숙재집》의 사료적가치

김 정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을 그저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3권 294페이지)

문집류의 민족고전은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형편과 인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처지와 함께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 세태풍습과 감정정서, 문학예술의 발전 등 력사연구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사숙재집》역시 그러한 문집류의 민족고전유산들중의 하나이다.

《사숙재집》은 15세기 후반기 조선봉건국가의 판료로, 문장가로, 농학자로 활동한 강희맹(1424—1483)의 글작품들을 묶어 편찬한 개인문집이다.

고려시기부터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에서 태어난 강희맹(자; 경순, 호; 사숙재 또는 농문거사)은 20대에 벼슬길에 올라 수십년간 조선봉건왕조의 레조판서, 형조판서, 리조판서, 우찬성, 좌찬성 등의 높은 벼슬을 력임하면서 세조, 예종, 성종 세 왕대에 걸쳐 공신의 칭호를 받은 고위급의 관리였다.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한 강희맹은 책읽기를 좋아하고 한번 본것은 그대로 기억하여 총명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강희맹은 일생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사숙재집》에 수록된 시작품만 하여도 1400여편이나 된다.

강희맹은 농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금양 즉 경기도 시흥지방 농사관계자료들을 기록한 농서 《금양잡록》에는 농업에 대한 그의 견해와 농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수록되어있으며 당시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면모가 반영되어있다.

《금양잡록》에는 마지막에 당시 시흥지방의 농민들속에서 전해지던 노래 14편을 한자시형태로 정리하고 《농구》라는 표제로 소개하였다.

《농부의 노래》 또는 《농가의 노래》로 해석되는 《농구》는 중세 우리 나라의 농민생활, 농촌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준 시가문학유산이다.

강희맹의 활동과 창작은 그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데 지향되었으며 수십년간의 벼슬살이과정에 봉건군주에 대한 충군사상과 맹목적인 아부아첨, 대세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추구하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부귀와 공명을 탐낸것으로 하여 오점도 남겼다.

강희맹의 대표작으로는 《금양잡록》과 농촌에서 사계절농사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취급한 《사시찬요》라는 농서가 있으며 문집으로 《사숙재집》이 있다.

《사숙재집》은 강희맹이 죽은 후에 당시 국왕이였던 성종의 명령으로 편찬된 그의 개인문집이다.

《사숙재집》의 서문에는 이 책의 편찬목적, 편찬경위, 편찬시기를 비롯하여 편찬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다.

서거정(1420—1488)이 쓴 이 책의 서문에는 《성상이 강희맹의 시와 문장이 길이 전해지게 특별히 명령하여 편찬하도록 하여 옛 선비를 공경히 대하니 더없는 은총이다.》라는 기

록이 있다.

《성종실록》에도 《임금(성종)은 희맹의 문장을 소중히 여겨 그의 시문을 편찬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 권151 2월 신사일)

《사숙재집》의 편찬은 강희맹이 죽은 후 그의 아들에 의하여 인차 시작되었다.

책의 서문에는 《만아들 구손이 상복을 입고있으면서 모은것을 얼마간 추려 보이면서 조언을 청하였다. 내가 펼쳐보니 옛일들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강희맹의 만아들인 구손이 상복을 입고있는 기간에 아버지가 남긴 얼마간의 글을 모아가지고 서거정에게 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사숙재집》의 편찬이 상제가 상복을 입는 기간 즉 강희맹이 죽은 직후에 그의 아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서거정 등의 참가밑에 완성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숙재집》의 서문은 서거정에 의하여 계묘년에 씌여진것으로 되어있는데 계묘년은 강희맹이 죽은 1483년이다.

이로부터 책이 1483년에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사숙재집》은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는 강희맹이 창작한 많은 시작품들과 산문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사숙재집》이 비록 봉건군주의 명령으로 편찬되었지만 거기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15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의 문학발전면모와 시대상을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사료로 된다.

민족고전 《사숙재집》의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여러 형식의 한자시작품들이 수많이 들어있어 이 시기 한자시문학의 발전면모를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책의 앞부분에는 서문과 강희맹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이 있다.

크게 운문과 산문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1권부터 10권의 전반부분까지는 5언, 7언절구, 5언, 7언률시, 고시 등 여러 형식의 다양한 주제의 한시작품 1 400여편이 수록되어있다.

《사숙재집》의 제1권에는 5언, 7언절구, 5언, 7언률시, 고시 등 여러 형식의 다양한 주제의 시작품들이 76편 수록되어있으며 제2권에는 88편, 제3권에는 89편 수록되어있다.

제4권에는 164편, 제5권에는 162편, 제6권에는 174편의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제7권에는 가장 많은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는데 모두 233편이다.

제8권과 제9권에는 각각 198편의 시작품들이, 제10권의 전반부분에는 23편의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사숙재집》에 수록된 시작품들을 그 형식에 따라 나누어보면 7언절구가 686편으로서 제일 많은 량을 차지하며 7언률시가 240편으로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5언절구가 158편, 5언률시가 124편이며 배률이 45편, 고시가 129편,사와 부가 각각 19편, 4편씩이다.

민족고전 《사숙재집》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들어있어 이 시기 세태생활과 사회 및 자연환경에 대하여 파악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숙재집》에 수록된 시작품들가운데는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특정한 자연현상이나 대상을 주제로 한 시작품들 그리고 세태생활과 풍습을 주제로 한 작품

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장쾌하구나 장백산》, 《장백산》, 《금강산》, 《소나무》, 《눈속의 참대》, 《창공의 솟은 달》, 《안해의 가없는 운명》, 《안방의 원한》(2편), 《농부의 노래》(14편) 등을 들수 있다.

강희맹은 《장쾌하구나 장백산》, 《장백산》, 《금강산》과 같은 작품들에서 장쾌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황홀한 백두산과 금강산의 경치를 시적으로 방불하게 묘사하면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 격동된 심정을 노래하였다.

자연대상물주제의 《소나무》, 《눈속의 참대》, 《창공의 솟은 달》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홀로 선 소나무나 눈내리는 날에 본 참대, 밤하늘에 높이 뜬 보름달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대상들의 특성과 그에 대한 느낌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절개와 의리, 인생의 우여곡절 등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안해의 가없는 운명》, 《안방의 원한》과 같은 세태생활주제의 시작품들과 《농부의 노래》와 같은 농업로동생활주제의 시작품들은 당시의 사실들과 현상들을 직접 취급한 작품들로서 15세기 후반기의 현실과 인민들의 처지, 로동생활풍습 등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는 사료로 된다.

이밖에 강희맹이 자기와 혈연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간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 등에 대한 느낌을 담은 시묵음들도 많이 수록되어있다.

강희맹의 시작품들은 묘사가 섬세하고 구체적인 반면에 격조와 호소성이 약한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사숙재집》의 10권 후반부분부터 17권까지는 여러 형식의 산문들이 120여편 수록되어있다.

여기에는 강희맹이 생전에 쓴 여러 서문들과 발문들, 임금에게 올렸던 글들과 신숙주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의 활동을 기록한 행장 등의 산문들도 올라있다.

《기》, 《서》, 《발》, 《찬》, 《상서》, 《행장》 등 17가지의 한문의 산문문체들로 씌여진 각이한 주제의 산문작품들가운데서 《서》가 18편, 《발》이 12편, 《기》가 10편이다.

강희맹이 임금에게 올렸던 《상서》는 4편, 다른 인물들의 활동을 기록한 《행장》은 3편 수록되어있다.

《사숙재집》에 수록되어있는 산문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력사적사건들과 사실, 인물들과 대상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강희맹의 세계관과 정치적견해 등을 파악할수 있게 해준다.

《사숙재집》은 강희맹과 편찬자들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봉건군주에 대한 충군사상을 설교하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있는 부족점이 있다.

그러나 《사숙재집》은 수록된 글작품들의 주제와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현실과 인민들의 생활감정, 세태풍속의 연구와 다양한 문체의 연구, 문학의 발전면모를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사료들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족고전들을 적극 찾아내고 번역정리하여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